

豐 嶺

1989~1990

全州文化院

(文化部 登録番号 第ㄱ-962号 登録日字 1981. 8. 10 郵便番号 560-020 隔月発行)

地域文化 · 地域人情 · 地域情報

靈 嶺

55

1990年 10月

● 특집 / 文化空間 · 全州川開發



□ 全北地方 文化暢達을 위한 綜合誌 □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 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 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23절~24절>

* 編 · 輯 · 後 · 記

回 전주천개발 문제를 특집으로 했지만 우선 문화공간을 위주로 했다. 휴식공간이 부족한 전주에서 전주천을 휴식공간화 하자는 것도 뜻있는 일이겠다.

回 지난 9월의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한강이 위험수위에 육박했고, 경기도의 한강둑이 무너져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것을 생각하면 전주천개발은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강이 넘쳐 흐르기 이전의 한강고수부지에 조성된 문화공간과 체육공간, 휴식공간은 참으로 부러운 시설이다.

우리 전주에도 그러한 문화공간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랄 뿐이다.

回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 글짓기 부록을 내놓는다. 노령에서도 어린이문화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쾌사라고 하겠다. <宋>

蘆 嶺

第 55 號

1990年 10月 15日

1990年 10月 10日 印刷 / 1990年 10月 15日 發行

《 非 賣 品 》

發行人 · 金 光 鎬

編輯人 · 張 明 洙

(「蘆嶺」編輯委員會)

印刷人 · 咸 淸

文公部 登錄番號 · 마-962號 登錄日字 · 1981年 8月 10日

發行所 · 社團 全州文化院
法人

全州市 慶園洞 1街 58의 4 ☎ ⑥ 7500

印刷所 · 鮮明出版社 ☎ ⑧40030·⑧42878

* 本誌는 韓國圖書雜誌 倫理委員會의 雜誌倫理 實踐要綱을 준수한다.

8	卷頭隨想 / 전주천은 시민의 애환	張明洙
---	--------------------------	-----

특 집 · 文化空間 · 全州川 開發

10	全州川을 우리의 놀이마당으로	朱宰萬
14	文化空間을 先行하는 開發	許聖培
18	마음의 고향에 넘쳐 흐르는 全州川	金景喜
22	신음하는 全州川의 목소리	목경희
28	휴식공간은 시민들의 편안한 놀이터	강만영

32	全州를 스쳐간 人物編③ / 檜山醫院 黃義燮	趙炳喜
36	畫家가 가본 내고장 山河 / 竹 島	이방우
38	가정의학·알고 생활합시다 / 전체식(全體食)	柳承國
40	좋은글귀풀이 / 鯉 庭	柳豐淵
41	우리말 우리글 / 송 편	崔昌烈
42	李鎬堦 칼럼 / 삶의 찬가 흐르는 全州川으로	李鎬堦
44	생활과 종교⑭ / 신용있는 생활인	金榮錫
46	全州的 傳統① / 부채 이야기①	편집실
52	새로운 情報通信의 서비스 / 바로알고 쓰는 전화 ...	申東澈
56	알기쉬운 보험가이드① / 교육보험이란 무엇인가 ...	양재기
58	全州名所讚⑤ / 역사의 香董 짙은 南固山 II	金永善
64	續·「나의 文學 60年」③⑩ / 詩人 金海剛 日記抄...(정리)曹圭華	
70	全州風物記⑭ / 全州川邊	宋榮相

37 表紙畫의 人物 ————— 박 민 평 —————

76 蘆嶺新人詩壇② / 벽(壁) 外 2편 임인정

제 7 회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 글짓기 모음집

■ 운문부

- 81 최우수상/우리고장 전주·전미정
82 금 상 / 우리 동네 차은송
83 금 상 / 경 기 전 김선종
84 금 상 / 덕진공원 오현숙
85 은 상 / 전 주 천 김은진
86 은 상 / 우리 동네 김 신
87 은 상 / 우리 동네 윤이나
88 은 상 / 경 기 전 이현용
89 은 상 / 경 기 전 김우진
90 동 상 / 덕진공원 김현철
91 동 상 / 우리 동네 최지란
92 동 상 / 경 기 전 박수현
93 동 상 / 우리 동네 유승현
94 동 상 / 우리 동네 김민자
95 동 상 / 우리 동네 김정호
96 동 상 / 전 주 천 유진아
97 동 상 / 덕진공원 전세용
98 동 상 / 우리 동네 소지성
99 동 상 / 우리 동네 김민경

■ 산문부

- 100 최우수상 / 우리 동네 .. 오인명
101 금 상 / 경기전과 나 ... 최은정
104 금 상 / 우리고장 전주·박혜영
105 금 상 / 경기전에 와서·김자현
107 은 상 / 경 기 전 이가연
108 은 상 / 발전돼야할전주·김은정
110 은 상 / 기 린 봉 홍혜연
112 은 상 / 우리 동네 오윤택
113 은 상 / 경 기 전 신은경
115 동 상 / 우리 동네 이경진
117 동 상 / 기 린 봉 김수영
118 동 상 / 우리고장 전주·하금옥
120 동 상 / 우리 동네 박병건
122 동 상 / 기 린 봉 김세리
123 동 상 / 덕진공원 유지현
124 동 상 / 기 린 봉 최병석
126 동 상 / 기 린 봉 김윤희
128 동 상 / 우리고장 전주·전현진
129 동 상 / 덕진공원 최현정

송 편

崔昌烈 (全北大教授)

한가위의 명절 음식이라면 일명 달떡이라고도 이름하는 송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추석이면 농사지은 햇곡식의 으뜸인 햅쌀을 떡쌀로 담갔다가 가루로 빻아서 송편을 만든다. 송편(松餅)의 모양은 달을 상징한 것이요 송편의 이름은 솔잎을 깔고 찌서 솔향기를 물씬 스미게 하는 과정을 상징한 것이다. 그리하여 집집마다 햅쌀을 새로 돌아나는 연한 움썅을 뜯어다가 섞어 푸른색이 들게 빻아가지고 끓는 물로 익반죽하여 매우 쳐대어 매끄럽고 쫄깃쫄깃하면서도 노골노골하게 만든 다음 팔고물을 넣어 빚어서 솔잎에 찌낸다. 이때 송편의 솔향기와 솔향기가 적삼 소메로 기여들면 가는 곳마다 술과 음식이 호뭇하게 제공되는 인심을 따라 비록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조차도 누구나 한가위 고향의 맛을 흠뻑 맛보게 되는 것이다.

송편의 맛은 그 속에 들어가는 팔고물, 소를 만드는 정성의 맛으로 더 돋아난다.

청두팍을 뗏돌에 갈아서 물을 부어 하룻밤 불리고, 붉은 팍은 손으로 껍질을 벗겨서 물로 행구어 깨끗이 기피한 다음 조리도 일어서 건져 티를 골라내고 찹통에 배보자기를 깔고 푹 찜다.

이렇게 하여 뜬이 들면 그릇에 쏟아 소금을 넣고 주걱으로 으깨면서 얼개미에 내려 두꺼운 남비에 이 팔고물과 설탕을 넣고 약한 불로 볶다가 계피가루를 넣어 개운한 맛이 나게 향기를 돋운다. 이 팔고물을 송편 속에 들어갈 만큼 작은 크기로 둥글게 쥐어 놓고, 송편을 너무 크지 않고 고르게 빚어 팔고물을 소로 넣은 다음 손으로 꺾꺾반달모양이 되게 쥐어서 손에 공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아물게 하여 서로 닿지 않게 늘어놓는다. 송편 속에 들어가는 소는 이밖에도 깨, 콩, 밤, 잣 등으로 맛이 다르게 만든다. 시루나 찹통에 솔잎을 깔고 이렇게 빚은 송편을 늘어놓고 다시 솔잎을 덮어가며 쪄켜이 놓고 찜다. 다 익으면 냉수에 송편을 행구어 씻어서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빠지게 한 다음 참기름을 바른단다. 만일 송편을 며칠 더 두고 먹으려면 송편을 물에 씻지 않고 솔잎이 묻은 채로 그냥 두면 쉬지 않는다. 솔잎은 이처럼 송편에 향기를 스미게도 하지만 범질되지 않게도 하는 자연의 무공해 방부제로서의 구실을 충분히 해낸다는 것을 우리 성인들은 발견해 낸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